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방향(안)에 따른 새로운 음악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탐색*

Exploring the Composition of New Music Curriculum According to the Direction(Draft) of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in 2022

박지현** · 김지현***

Jihyun Park · Jheehyeon Kim

초록 본 연구는 2022년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제시된 총론의 방향(안)에 따라 새로운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 방안을 탐색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함의를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공문서, 선행연구, 연구보고서, 국내 및 국외 교육과정 문서 및 범국가적 기구들의 연구 자료 등을 대상으로 이론적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온라인 전문가 자문 조사 및 협의회를 거쳐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개선 방안의 타당화 및 구체화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성 방안, 즉 음악과의 목표, 교과 역량, 내용 영역 및 성취기준별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안하였으며, 이는 총론의 새로운 방향과 최근 교육과정 관련 경향성과 구체성을 모두 포괄하는 시의적절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교육과정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역량, 구성방안, 총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ollowing curriculum revision by exploring ways to organize new music curricular composi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direction(draft) presented ahead of the curriculum revision in 2022. To this end, theore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related official documents, prior research, research repor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urricular documents, and research materials of cross-national organizations. In addition, experts' advisory opinions were comprehensively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s and councils, so improvement plans were validated and concretized. To conclude, the composition plans for each goal, competency, content area,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a new music curriculum were derived and proposed. It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an apposite study that encompasses both the new direction(draft) of curricular and the recent tendency.

Key words: curriculum revision, music curriculum, competency, composition plan, national curriculum

* This study is revised and supplemented centering on the study conducted by these researchers in the Yu, et al.(2021).

** First author, E-mail: jhp@gnue.ac.k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55 Pilmun-daero, Buk-gu, Gwangju

*** Corresponding author, E-mail: rheen12@hotmail.com

Music teacher, Kyungdong High School, 49, Bomun-ro 29-gil, Seongbuk-gu, Seoul, Kore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바도 변화하고 있다. 한번 배운 지식을 특별한 변용 없이 적용하면 되던 시대는 어느덧 지나가고, 보다 많은 지식이 요구되고 그 지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급변하고 있다. 본격적인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언제가 이루어지겠지라는 바램과 같던 교육의 모습이 일 년 만에 일상이 되었고 이러한 수업과 관련된 지식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해졌으며 이러한 지식을 잘 운용하고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사회·경제·인구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를 살아갈 인간에게 단편적 지식의 습득이 아닌 지식의 활용을, 그리고 이러한 활용·적용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점이 현재 교육계에서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역량이란 개인의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암기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며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존재하는 여러 타인과 함께 더불어 협력하며 발전시켜가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의 총체를 말한다.

역량 함양 교육은 이제 전 세계 교육계의 핵심 목표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이러한 역량 교육을 명시화하게 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당시에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의 역량의 정의나 내용에 대한 연구는 많았던 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내용과 과정과 방법으로 함양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실제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Kwon et al., 2018; Min, 2020; Park & Yang, 2018; Lee, 2019).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역량은 목표 수준에서 용어를 제시하고 관련 정의를 진술하는 것으로 그쳤고, 이후 제시되는 내용, 성취기준, 방법, 평가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못하였다(Park, 2019a; 2019b).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국내외 교육계에서는 역량 함양 교육의 실체를 더 구체화하고 명료화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2022년 차기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 보다 실체화된 역량 교육 등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총론 및 각론 차원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수행된 연구 결과(안)에 따르면(MoE & KICE, 2021), 핵심 역량의 범주를 ‘학습자’, ‘공동체인’, ‘생활인’의 세 가지로 제시하며 2015 교육과정과 다소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내용이 새로워

졌다기보다는, 2015와 비교할 때 강조점과 지향점이 보다 명료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전까지 추후 여러 연구를 통해 변화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여러 경향과 논의를 고려한 방향 제시라는 점에서 각 교과에서도 발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연구된 총론의 새로운 방향(안)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차기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바를 분석하여 음악과에서 어떻게 수용 및 적용할 수 있고, 어떠한 목표, 역량, 내용, 방법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는 일정을 고려할 때 각 교과에서 교육과정을 구안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 볼 수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먼저, 2022년 차기 교육과정 관련 공문서 및 연구 자료, 그 외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와 관련 자료, 해외 음악과 교육과정 관련 자료, OECD 및 EU 등 범국가적 기구들의 연구 자료, 교육과정 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 등을 대상으로 기록자료연구(Documentary research) 방법을 적용하여 이론적 분석(Ju et al., 2018)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음악교육전공 교수 4인, 연구원 1인, 교사 4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견 조사, 검토회, 자문 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 방향 및 방안의 타당성과 구체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차기 교육과정 총론 방향(안)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 항목인 목표, 역량, 내용 체계, 성취기준별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Overview of research content and method

| Content | Subject | Method | Period |
|---|--|--|--------------------------------|
| Literature analysis and implications derived | Materials related to the curriculum of Korea, international music curriculum documents, and other various research materials | Documentary research | August to December 2020 |
| ↓ | | | |
| Review the validity of issu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 Four professors in music education, one researcher and four teachers | Online opinion survey and review session | December 2020 to February 2021 |
| ↓ | | | |
| Consider the concreteness and validity of the improvement plan | Three professors in music education | Expert advisory council | March 2021 |
| ↓ | | | |
| Derivation of final improvement plans of a new music curriculum: goal and competency, content area, achievement standards | | | |

II. 이론적 배경

1. 차기 교육과정 총론 방향(안)의 개요

2022년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현재까지 연구된 자료(MoE & KICE, 2021)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대상 교육 현장의 요구 분석과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및 협의회를 통해 향후 핵심 역량(안)의 방향과 범주화(안)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추가적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될 여지는 충분하지만 현재까지의 안을 검토해 보면, 총론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한 핵심 역량을 각 교과가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성취기준, 방법, 평가에서 구체화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총론의 핵심 역량은 특정 교과에 치우치지 않게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각 교과는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 역량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기존 2015 교육과정에서 제기된 총론 역량 및 교과 역량 간 역할 모호, 교과별 특성 반영 부족 등의 문제(Min et al., 2018; Park, 2019a; 2019b; Lee et al., 2019)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방향에서 다음 <Table 2>와 같이 핵심 역량을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제시하

고 있다. 범주별 정의와 명칭은 있지만 핵심 역량을 명명하지 않은 이유는 추후 각 교과별로 교과 역량을 구체화하면 그 후 이를 포괄하여 핵심역량으로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즉 2015 시기에는 핵심 역량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교과 역량이 제시되어 핵심 역량으로 명명된 용어에 대해 각 교과별로 이견들이 많았고 핵심 역량에 예측되는 교과라는 불만들도 있었는데(Ju et al., 2020),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을 먼저 명명한다는 점에서 상기의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겠다. 세 범주의 특성을 살펴보면, 범주1(탐구하는 학습자)은 교과 고유의 내용과 방법 및 활용에 대한 것이어서 교과별 특성이 반영된 교과 역량 설정과 가장 많이 연계된 범주이다. 범주2(참여/협력하는 공동체인)는 교과별 내용을 활용하여 공동체 참여 및 사회 발전과 관련되는 것이고, 범주3(성찰/발전하는 생활인)은 학습자의 현재와 미래 삶과 관련지어 성찰 및 발전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MoE & KICE, 2021: pp. 9-10). 요컨대 범주1은 교과 자체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범주2는 횡적 측면에서 이를 사회적으로 협업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범주3은 종적 측면에서 개인의 평생 성찰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향에 따라 각 범주별로 1:1 대응하여 교과 역량을 설정할 수도 있고, 2가지 범주를 1가지로 합치거나 범주의 범위를 다소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새로 제시된 총론의 방향은 세 가지 범주를 강조하되, 교과 역량 설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new core competencies(draft) in national curriculum

| Category | Definition by category | Names by category | Core competency |
|------------|--|---|-----------------|
| Category 1 | Category related to the acquisition method and utilization of the subject-specific inquiry function and learning method required to learn the curriculum-specific educational content (knowledge/function/value/attitude are all included) | Learner of exploration | (Undecided) |
| Category 2 | Category for participating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and striving for the development of society by using the curriculum-specific educational content | Community member of participation & cooperation | |
| Category 3 | Category to continuously utilize and develop the curriculum-specific educational content in my present and future life | Practical person of reflection & development | |

2. 국외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의 시사점

상기의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를 구성함에 앞서 국외 음악과 교육과정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Table 3>과 같이 미국은 별도의 역량 제시 없이 음악 내용과 활동 속에 역량이 있다고 보면서 실제적 음악 참여와 음악적 사고 및 이해를 강조하였고, 캐나다는 주마다 다양하지만 온타리오(Ontario) 주 및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를 중심으로 보면 탐구 · 성찰 · 추론 등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며 문화적 맥락을 주요하게 언급하였다. 호주는 음악 활동, 만들기, 반응을, 뉴질랜드는 문화 · 맥락 · 소통, 음악적 아이디어와 실제를, 싱가포르의 연주 · 창작 · 반응 · 문화 등과 ICT 활용을, 독일은 음악적 조직 · 전이 · 성찰 · 발견 · 인식 · 문화 등을, 프랑스는 감각과 사고의 결합, 해석 · 비교 · 논평 · 토론 · 공유 · 창작 등과 음악 관련 실제적 체험을, 그리고 핀란드는 참여와 협력, 음악하기, 문화, 음악에서 학습하는 방법

<Table 3> The competency and goal on music curriculum of each country

| Country | Key features |
|-------------|--|
| USA | • Emphasis on musical literacy, practical music engagement/performance and musical thinking and understanding |
| Canada | • Emphasis on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such as exploration/reflection/creation/reasoning, and cultural context/understanding |
| Australia | • Direct linkage between competency and music content using icons • Emphasis on creating music activities and reactions |
| New Zealand | • Emphasis on culture/context/communication, emphasis on musical idea and practice, literacy in music activity/content |
| Singapore | • Emphasis on performance/creation/response/culture, etc. • Highlight ICT utilization in documents |
| Germany | • Emphasis on music organization/transition/reflection/discovery/perception/culture, etc. |
| France | • Emphasis on combining senses and thoughts, interpretation/comparison/commentary/discussion/sharing/creation, and actual role experience in music |
| Finland | • Emphasis on participation/cooperation and music, music environment in culture/life, culture, multiliteracy, learning how to learn from music |

1) 국외 교육과정은 미국(National Coalitions for Core Arts Standards, 2013;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2014), 캐나다(Ontario Curriculum, 2009; 2010;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2016; 2018), 호주(ACARA, 2015), 뉴질랜드(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2010), 싱가포르(Student Development Curriculum Division, 2016), 독일(Bildungsserver Berlin-Brandenburg, 2017/2018; Deutscher Bildungsserver, 2021), 프랑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15; 2016), 핀란드(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의 교육과정 문서에 기초하여 유창완 외(Yu et al., 2021: pp. 96-98, 196-200)를 재구성하여 정리함.

학습 등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Yu et al., 2021).

요약해 보면, 음악과에서 주로 음악 영역이라고 일컫는 듣기(감상), 노래, 연주, 창작(만들기) 등의 직접적인 활동적 측면과 음악적 탐구, 추론, 문제해결, 이해 등의 인지적 사고 측면, 그리고 문화, 협력, 참여, 공유 등의 사회적·맥락적 측면이 모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총론 방향에서 언급한 탐구하는 학습자, 참여/협력하는 공동체인, 성찰/발전하는 생활인의 세 범주와도 적절히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전반적 특징을 기반으로 음악과 역량 및 내용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얻고자 한다. <Table 4>와 같이 각 나라의 총론 역량, 음악과 역량, 내용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총론 역량은 대체로 제시되어 있지만 음악과 역량 제시 여부는 나라마다 달랐다(Yu et al., 2021). 음악과 역량을 제시하지 않은 나라들은 총론 역량을 함양하는 음악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역량과 음악 내용을 바로 연결한 것이고, 음악과 역량을 제시한 나라들은 음악 내용 중심으로 음악과 역량을 제시하고 그 하위 내용 영역은 우리나라와 같은 ‘표현, 감상’ 등의 용어로 따로 명명하기보다는 음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1) 총론 역량 - 2) 음악과 역량 - 3) 내용 영역을 모두 가지는 경우 3) 내용 영역 층위에서는 다양한 음악 내용을 문장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형태로 띠고 있어서, 1)-2)-3) 모두가 문장이 아닌 주요 용어로 명명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 구성과는 다른 형태이었다.

크게 음악과 관련되는 범교과적 측면(예, 창조, 소통, 참여 등)과 음악의 주요 내용적 측면(예, 듣기, 만들기, 연주 등)으로 양분하여 볼 때, 범교과적 측면은 총론 역량에, 음악 내용은 음악과 역량이나 내용 영역에 제시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음악과 역량으로 명명할 때는 음악 내적인 표현적 활동 중심 진술보다는 만들기, 탐구 등 좀 더 폭넓게 범교과적 측면과 연계한 진술이 많은 편이었다.

<Table 4> The core and musical competency, content area of each country

| Country | Core competency | Musical competency | Content area |
|-------------|--|--|---|
| USA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ting • performing • responding • connecting |
| Canada (B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tive thinking • critical thinking • communication • positive personal/cultural identity • personal awareness and responsibility • social awareness and responsibil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lore and create • reason and reflect • communicate and document • connect and expa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ments in the arts • processes, materials, movements, technologies, tools and techniques to support arts activities • notation to represent sounds, ideas and movement, etc. |
| Australi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teracy • numeracy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apability •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 personal and social capability • ethical understanding • intercultural understanding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 responding |
| New Zeala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nking • 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s • managing self • relating to others •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the arts in context • developing practical knowledge • developing ideas • communicating and interpreting |
| Singapor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lues: responsibility, respect, resilience, etc. •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self-awareness, self-management, social awareness, etc. • emerging 21st century competencies: civic literacy, global awareness and cross-cultural skills, critical and inventive thinking skills,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kill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form music in both instrumental and vocal settings, individually and in groups • create music in both instrumental and vocal settings, individually and in groups • listen and respond to music • appreciate music from local and global cultures • understand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

<Table 4> Continued

| Country | Core competency | Musical competency | Content area |
|---------------------|---|--|---|
| Germany (Hesse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sonal competency • social competency • learning capabilities • ability to speak a languag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sic listening • music making • music transition/ transformation • exploring music culture | (It is stated in specific details.) |
| Fr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guage skills for cultivating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 learning methods and tools • personality and democratic citizenship • natural and technical systems •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the world and human activi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g • listen, compare, and explain • explore, imagine, and create • exchange, share, and argue | |
| Finla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nking and learning to learn(T1) • cultural competence, interaction and self-expression(T2) • taking care of oneself and managing daily life(T3) • multiliteracy(T4) • ICT competence(T5) • working life competence and entrepreneurship(T6) • participation, involvement and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T7)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music together(C1) • components of music(C2) • music in the pupil's life, community, and society(C3) • repertoire(C4) |

3. 그 외 음악과 관련 연구들의 시사점

국외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이외에 역량 관련 연구를 주도해온 OECD나 EU의 연구와 그 외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다음 <Table 5> 참조). 대표적으로 OECD는 지난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교육계에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2015년부터 수행된 OECD Education 2030이라는 후속 프로젝트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역량 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학습자의 주체성, 행동과 성찰을 근간으로 사회·정서적 기반 하에 함께 참여하고 사고하고 성찰하며 협응 하에 예술 작품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감, 공유, 문화 유산 공헌, 삶에 기여 등을 내용상 강조하였다(OECD, 2021). EU는 8개 역량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문화적 인식

과 표현 역량이 음악과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이디어나 의미 등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표현되고 소통되는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 2021).

OECD, EU 등 국제 기구 외에도 개인이나 단체의 다양한 연구들을 유목화보면, 음악에서의 사회와 문화(Mellizo, 2020; Varner, 2020; Walter, 2018), 음악에서의 이해와 사고(Tobias et al., 2015; Zaffini, 2018), 음악에서의 테크놀로지(Dunbar, 2016; Liu, 2020; Nichols, 2020)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토대로 보면, 음악교육에서 사고와 성찰, 협응과 협력, 문화적 인식과 맥락 등이 중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총론의 세 범주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음악에서 문화적 맥락과 표현이 교과 특성상 보다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Core content of OECD, EU and other studies on music education

| Category | Key features |
|------------------|---|
| OEC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phasis on socio-emotional foundations: art activities in participation, thinking, reflection, and collaboration together• Contributing to cultural heritage, music activities (creating/playing), ideas, musician-like thinking, contributing to life, moral/ethical/legal issues |
| E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phasis on cultural awareness and expression competence• Various cultures, expressions, influences, communication, interpretation, ethics/responsibility, personal/social/commercial values, etc. |
| Other research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chnology: use of ICT, technology, online class composition• Emphasis on the linkages of music: between music and other areas, between music and cognitive/thinking/social factors• Emphasis on thinking: critical thinking, understanding, etc.• Emphasis on actual contexts such as experience-based, cultural, and music industries• Highlight key knowledge/function/propensity/attitude |

III. 음악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총론에서 새롭게 제시한 방향(안)은 국외 음악과 교육과정 관련 논의 결과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새로운 방향 하에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이 음악과 역량 혹은 내용 영역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요컨대 다른 나라와 달리 ‘1) 총론 역량 → 2) 음악과 역량 → 3) 내용 영역’의 세 층위가 모두 ‘단어 수준’에서 명명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문서 구성을 고려할 때,

음악과 역량은 주요 음악 내용을 포괄하되 범교과적 층위에서 진술하고, 내용 영역은 주요 음악 내용을 중심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예컨대 현행 생활화 영역은 내용이 아닌 역량 수준에서 언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될 목표, 역량, 내용 영역, 성취 기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음악과 목표 및 역량(안)

상술한 현행 교육학 및 해외 음악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성을 보완하여, 음악과의 목표는 “평생의 실제 삶 속에서 스스로/자발적으로 다양한 음악을 함께 즐기고 참여하며 음악적 아름다움과 창의적 속성을 느끼고 문화적으로 공감, 이해, 융합,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즉 소리 표현 예술이라는 본질적 측면, 음악의 아름다움이라는 감성/정서적 측면, 사고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측면, 상상 및 창의성과 관련되는 창의적 측면,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되는 문화적 측면, 지역/사회 간 연계나 평생 삶 속의 참여라는 사회/생활적 측면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근간으로, <Table 6>과 같이 총론의 새로운 방향에 따라 음악과 특성을 반영한 주요 개념을 제시하고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 역량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Table 7>과 같이 음악과 역량(안)을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탐구하는 학습자’는 ‘음악 자체’ 고유의 학습 방법과 기능에 대한 것으로, 노래, 연주, 창작, 감상, 감수성, 음악적 사고, 음악적 정보 등이 해당하며 2015 개정의 음악적 감성,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음악 정보처리 역량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참여/협력하는 공동체인’은 문화적 공동체로서 ‘타인이나 사회’와 함께 협력 및 소통하는 것으로, 협력적 음악 활동, 소통, 공감, 다문화, 음악의 역할 및 기여 등이 해당하며 2015 개정의 음악적 소통 및 문화적 공동체 역량과 연결된다. ‘성찰/발견하는 생활인’은 평생에 걸친 ‘나’의 음악적 삶과 생활 및 내면화에 대한 것으로, 음악적 성찰, 음악적 태도, 행복, 책임감, 음악의 생활화 등이 해당하며 2015 개정의 자기 관리 역량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Improvement plans of musical competency according to the core competency(draft) of national curriculum

| Direction of core competency | Learner of exploration | Community member of participation & cooperation | Practical person of reflection & development |
|--|---|--|---|
| Key concepts of music curriculum | ‘Music’ itself: Music and its own learning methods and skills | Relationship with ‘others/society’: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together as a cultural community | ‘My’ Life/Future: Life of music throughout the lifelong, Internalization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Musical expression/activity methods (skills, techniques, tools, etc.) such as singing, musical instrument, creation/composition, improvisation• Musical sensitivity, auditory sense, etc.• Musical ideas, creativity, music information processing, etc.• Thinking ability, problem solving, convergence, etc.• Body, media, ICT, and other ways to u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operation, communication, empathy, interaction, respect, consideration• Multicultural, historical/ cultural context and understanding, sense of cultural community• Musical role, pluralistic value, contribution, music industry/commer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rospection, reflection, internalization• Musical responsibility (moral/ethical/legal, etc.)• Open/active attitude, leading experience/ participation, enjoyment, happiness, quality of life• Musical action, practice, application, transition, diffusion, etc. |
| Relevance to competency in 2015 revised curriculu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Musical sensibility• Musical creativity and convergence thinking• Music information process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Musical communication• Cultural commun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lf-management |

이에 따라 다음 <Table 7>과 같이 다양한 음악과 역량(안)을 제안할 수 있다.

<Table 7> A plan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music curriculum according to core competency(dr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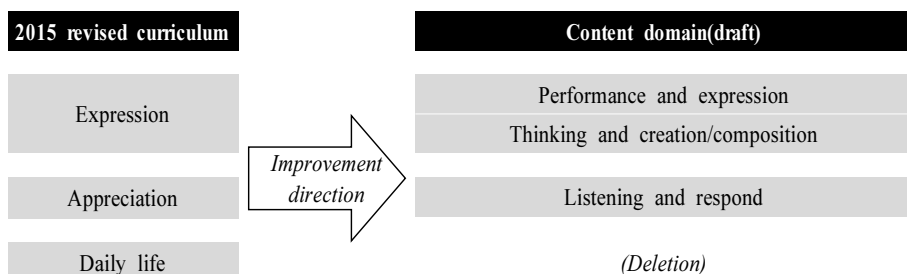
| Direction of core competency | | Learner of exploration | | | | Community member of participation & cooperation | | Practical person of reflection & development | |
|------------------------------|------------------------------|--|----------------------------|----------------------------|---------------------------------|--|-----------------------------|--|--------------|
| Musical competency (draft) | 1st | Sensibility and expression | | Exploration and creativity | | Connection and communication | | Practice and expansion | |
| | | | | | | | | | |
| | 2nd | Sensibility | Information processing | Creativity | Expression | Musical cooperation · communication | Cultural community | Musical reflection | Musical life |
| | | | | | | | | | |
| | 3rd | Emotional · musical sensibility Musical literacy Musical understanding and thinking | | | | Musical creativity and convergence Participation and share in music | | | |
| | | | | | | | | | |
| | 4th | Musical sensibility Musical think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 Musical expression and production Musical cooper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community | | | | | | Musical internalization and practical ability in music | |
| | | | | | | | | | |
| 5th | Appreciation and sensibility | Thinking and creation/ composition | Performance and expression | | Musical cooperation and culture | | Musical reflection and life | | |

역량 설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탐구하는 학습자(1)’ 범주를 강조하였고, 둘째, 음악적 특성을 반영하되 범교과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포괄적 용어(예, 연주→표현/표출)를 사용하였으며, 셋째, 음악에서 강조되어온(예, 표현/감성/문화 등), 국외 음악과 연구에서 많이 등장한(예, 소통/탐구/사고 등), 최근 교육적 경향성을 담은(예, 탐구/협력/소통/성찰 등)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1안은 (1)범주를 강조 분화하면서 전반적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진술, 2안은 1안을 좀 더 분화하여 진술, 3안은 (2)와 (3)의 범주를 합쳐서 진술, 4안은 (1)과 (2)를 합쳐서 이를 강조하여 분화 진술, 5안은 가장 음악적인 용어로 진술한 방안이다.

2. 음악과 내용 체계(안)

음악과 역량(안)에 따라 다음 [Figure 1]과 같이 내용 영역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음악과 역량은 음악 주요 영역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 용어 중심이었다면, 그에 따른 내용 영역은 음악 고유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연주, 창작 등의 음악 특성을 강조하고 사고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표현 영역을 ‘연주와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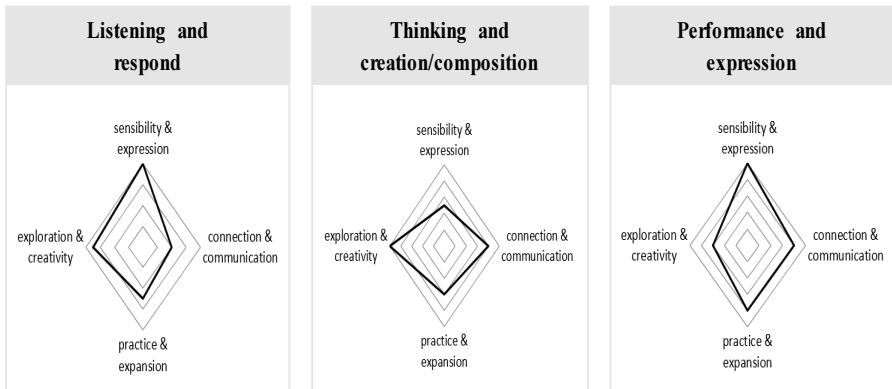
‘사고와 창작’으로 분리하였다. 역량과 달리 보다 음악적 용어를 제시하기 위해 연주를 제시하되, 이에 포함하기에는 모호한 그림/신체 활동 등도 포괄하기 위하여 표현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사고(Thinking)를 창작과 함께 별도 표기한 것은 연주나 감상 활동에서도 수반되는 것이나, 비교적 창작과 더 연계되고 음악적 인지 과정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기존의 감상 영역은 보다 능동적 감상 및 비평을 강조하기 위하여 듣기 이후의 과정인 반응을 추가하여 ‘듣기와 반응’으로 설정하였고, 기존의 생활화 영역은 음악 고유의 영역이 아니고 음악과 역량과 직결되므로 영역에서는 삭제하였다.



[Figure 1] Improvement plan for content domain in music curriculum

사실 연주/표현, 사고/창작, 듣기/반응 등의 영역은 실제 음악 활동에서 서로 혼합되고 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음악 교육을 교육과정 상에서 영역명으로 구분하여 명명하는 것은 음악 경험의 단계별 및 범주별 학습을 위해 세부 음악적 특성별로 특정하였을 뿐이다. 어떤 용어가 영역명으로 강조되고 어느 용어와 배치하는가에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과 논의가 있겠지만, ‘하나의 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명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음악 영역은 모든 음악과 역량과 연계되고 그 정도와 수준에 있어서만 다음 [Figure 2]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다. 즉 어떤 역량이 어떤 내용 영역에 특정하여 관련된다고보다, 하나의 영역이라도 실제로 어떠한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수·학습하느냐에 따라 관련 역량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Figure 2]는 음악 자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볼 때 각 영역이 음악과 역량과 보통 더 많이 연계된다고 언급되는 차원에서 설정된 것이다. 예컨대 듣기 영역에서는 감성(Sensibility) 역량이, 혹은 창작 영역에서는 창의(Creativity) 역량이 보통 좀 더 연결된다고 보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 교수·학습에서는 수업 내용과 방법에 따라 영역과 역량의 연계 정도가 달라지고 다양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후술할 성취기준(안) 참조).



[Figure 2] Degree of competency by content domain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plan in music curriculum

이상의 세 가지 음악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Table 8>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총론의 내용체계표(안) 구성 방식인 ‘핵심 내용에 대한 정의를 문장 형태로 진술하기’(MoE & KICE, 2021: pp. 10-11)에 따른 것으로, 음악과 고유의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담은 핵심 내용을 초등을 예로 제시한 것이다.

<Table 8> Example plan for the content system table of elementary school in the music curriculum

| Domain | 1st~2nd grader group | 3rd~4th grader group | 5th~6th grader group |
|------------------------------------|---|---|--|
| Listening and respond | Listen to various sounds and music around and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feelings in sounds and music. | Listen to music in school and in everyday life, have a feeling and enjoyment, and recognizes and responds to basic musical characteristics. Communicate each other's feelings and respond and recognize the influence of music. | Listen to various music in school and in everyday life, recognize musical beauty, emotions, and impression, and sense, differentiate, and respond to major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And share, communicate, and understand those musical responses together. |
| Thinking and creation/ composition | Explore and experiment with surrounding sounds and music, imagine simple musical ideas, and improvise them alone or together. | Explore the main elements and concepts of music encountered in school and in everyday life, and make various sounds and music alone or together by planning. | Experience music from schools, everyday life and various cultures, and analyze, interpret, and understand the main elements and concepts of music. And create various musical ideas and music, diversify and refine musical thinking with students. |

<Table 8> Continued

| Domain | 1st~2nd grader group | 3rd~4th grader group | 5th~6th grader group |
|----------------------------|--|---|---|
| Performance and expression | Imitate, try, and express simple sounds and music alone or together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voice, instrument, body, object, and painting. | Perform musical expression activities such as singing and playing instruments alone or together in school or in everyday life, and experience and utilize various other methods of expression such as body and media. | Practice various musical expressions with students in school or in everyday life, and experience various ways of using and applying them. Through this, have an attitude of expressing and practicing music in their lives. |

3. 음악과 성취기준(안)

성취기준은 음악과의 주요 교육 내용을 역량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Table 9>와 같이 9학년을 하나의 예시로 세 가지 음악 내용 영역별로 주요 음악 내용 요소를 성취기준 번호와 함께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이 각 음악과 역량에 따라 어떤 성취기준으로 진술될 수 있는지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총론의 새로운 성취기준 제시(안)(MoE & KICE, 2021: p. 13)에 따른 것으로, 2015 개정과 같이 영역별로 성취기준을 제시하되 본 개선 방안에서는 같은 영역이라도 어떠한 역량을 함양할 것인지에 따라 성취기준의 진술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영역별 학습 내용이 다양한 역량과 연계되고 예시적으로 어떤 역량별 특성을 함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또한 평가 준거로도 작동하여 교육과정-학습-평가의 일체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기준은 기존의 행동 중심 수행 동사에서 벗어나 지식 및 기능이나 사고, 태도와 가치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진술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9> Example plan for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middle school in the music curriculum

| Domain | Learning contents | Competency |
|------------------------------------|---|---|
| Thinking and creation/ composition | <p>[9Mu01-03] Understanding music composition, making simple music</p> <p>[9Mu01-04] Create a music drama that suits the theme.</p> <p>[Learning Elements] meter, rhythm, melody, tonality, chords, form, dynamic, tempo, tone, music drama</p> | <p>[Sensibility and expression] Appreciate a scene from a music drama(opera, musical, Changgeuk, etc.), and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and the atmosphere of the stage.</p> <p>[Exploration and creativity] Conceive a scene from a music play that suits a given theme and create a simple song using various musical elements.</p> <p>[Connection and communication] Gather the scenes of the music plays presented, discuss each other, make a story, and decide the order.</p> <p>[Practice and expansion] Direct and present a music play at a school festival.</p> |
| Performance and expression | <p>[9Mu01-01]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singing with individuality, playing an instrument</p> <p>[9Mu01-02] variety of music, body expression</p> <p>[Learning Elements] variety of music, singing, playing an instrument, body expression, posture and technique</p> | <p>[Exploration and creativity] Appreciate various folk songs with different Sigimsae and explain the differences.</p> <p>[Sensibility and expression] Express appropriately Sigimsae in a piece of music, and realize its feelings and key elements.</p> <p>[Connection and communication] Present Sigimsae's line expressed with bodies that followed by several students.</p> <p>[Practice and expansion] Compose a plan to promote the valu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Gugak.</p> |

IV. 요약 및 결론

2022년 차기 교육과정을 앞두고 음악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총론의 새로운 방향(안)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최근 교육과정 개정 관련 문서들을 분석하고, 국외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OECD와 EU 등의 범국가적 연구, 그 외 다양한 음악과 교육과정 연구들을 종합하여, 향후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 할 방안을 음악과 목표 및 역량, 음악과 내용 영역 및 내용 체계, 성취기준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의 범주는 총 세 가지로, 탐구하는 학습자, 참여/협력하는 공동체인, 성찰/발전하는 생활인이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진일보한 형태라 분석될 수 있었다. 첫째, 교과 고유의 특성이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탐구하는 학습자를 제시하였고, 둘째, 범주만 설정할 뿐 특정 용어를 바탕으로 한 총론의 핵심 역량을 명명하지 않아 교과 역량 설정에 보다 자율성을 주었으며, 셋째, 세 범주를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교과 역량 설정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주었다는 점이다. 즉 교과와 특성 기반 역량 교육 실현이라는 점과 총론의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 간 연계성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향이라 하겠다.

내용상 이러한 총론의 제안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경향성과 일치하였다. 많은 국외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1) 연주, 창작 등의 음악 활동적 측면, 2) 탐구나 성찰 등의 인지적 사고 측면, 그리고 3) 문화나 협력 등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OECD, EU, 그 외 연구들에서도 음악 활동/표현, 음악적 이해와 사고, 음악에서의 사회/문화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각각 우리나라의 새 총론 방향인 1) ‘탐구하는 학습자’, 2) ‘참여/협력하는 공동체인’, 3) ‘성찰/발전하는 생활인’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총론의 방향이 음악과에도 적절히 부합된다고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용어를 중심으로 음악과 역량과 내용을 설정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크게 음악과 관련되는 범교과적 측면, 예컨대 소통, 참여, 성찰 등, 그리고 음악의 내용적 측면, 예컨대 듣기, 창작, 연주 등으로 양분해 볼 수 있었고,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역량이 되고 내용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범교과적 측면만이 주로 제시되면 총론의 핵심 역량, 범교과적 측면과 음악 내용적 측면이 혼합되면 음악과의 역량, 그리고 음악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면 음악 내용 영역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악과 역량을 여러 가지 안으로 제안하였는데, 대표적으로 ‘(1) 감성과 표출(표현) 역량’, ‘(2) 탐구와 창의 역량’, ‘(3) 연계와 소통 역량’, ‘(4) 실천과 확장 역량’으로 제안할 수 있었다. 이 중 (1)과 (2)는 ‘탐구하는 학습자’, (3)은 ‘참여/협력하는 공동체인’, (4)는 ‘성찰/발전하는 생활인’이라는 총론의 방향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음악과 내용은 기존의 표현, 감상, 생활화에서 표현을 분화하고 생활화를 삭제하여, ‘(1) 연주와 표현’, ‘(2) 사고와 창작’, ‘(3) 듣기와 반응’의 세 영역으로 제안하였다. 기존의 생활화는 음악 고유의 영역이 아닌 역량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았고 표현은 음악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므로 분화하여 강조한 것이다. 이 영역들이 음악과 역량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그림을 통해 보여주었는데, 모든 영역이 모든 역량과 연계된다는 전제 하에 정도와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더불어 각 내용 영역별로 위계성과 연계성을 갖고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예시적으로 진술하였고, 동일 내용 영역이라도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에 따라 성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영역별 및 역량별로 성취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때 성취기준은 음악과의 지식, 기능, 태도, 가치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진술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행동 중심 수행적 성취기준을 넘어서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제안한 새로운 음악과 교육과정 방안은 총론의 새로운 방향과 최근 국외 음악과 교육과정 관련 경향성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용어와 내용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지, 타당한지, 현장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검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 문서 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총론 역량’과 ‘내용 영역’ 사이의 교량적 단계로서 ‘음악 교과 역량’의 유의미한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앞으로 이 연구를 발판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이나 국외 경향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보다 진일보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

- Dunbar, L. (2016). Embedding technology and assessment into the music classroom with nearpod. *General Music Today*, 29(3), 33-37.
- European Commission (2021). *Supporting key competence development: Learning approaches and environments in school education*. Retrieved 16 January, 2021, from https://ec.europa.eu/education/events/supporting-key-competence-development-learning-approaches-and-environments-in-school-education_en
- Ju, D. C., Hyun, K. S., Min, K. H., Yang, J. M., Kim, Y. H., Cho, S. G., Kim, J. H., Kwon, S. M., Cho, D. H., Park, J. H., Choi, J. H., & Lim, E. J. (2018). *Understanding of music education research methods*. Seoul: Hakjisa.
- Ju, H. M., Kim, J. Y., Bae, H. S., Byeon, H. H., Yu, G. B., Seo, J. Y., Jang, G. J., Park, S. Y., & Bae, J. K. (2020). *An analysis on the appropriateness of content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2015 curriculum: Physical education, music, and art subjects*(RRC 2020-6-3). 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im, J. H. (2019). Educational exploration and reflection of the ‘music and occupation’ in daily life domai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95-119.
- Kim, S. M., Kim, J. H., & Park, Y. J. (2020). A comparative study on music teacher training programs of Ontario, Quebec, British Columbia in Canad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2), 69-90.
- Kwon, J. R., Lee, K. E., Min, Y. S., Kim, H. M., Kim, G. C., & Kim, H. J. (2018).

-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primary and secondary curriculum: Focusing on Korean language, social studies, mathematics, physical education, and music subjects*(RRC 2018-10). 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K. E. (2019).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presentation methods of competences in the music curriculum: With a focus on South Korea, France, Finland, and Australi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2), 61-84.
- Lee, S. M., Lee, K. N., Shin, H. J., Bae, H. S., Park, J. H., Byeon, H. H., Byeon, T. J., Gwon, Y. J., Cho, G. H., Lee, K. E., Choi, S. H., Kim, J. S., Lee, B. C., & Park, S. K. (2019). *A study on systematization of the competency and function in the revised 2015 curriculum*(policy research MoE service-2019-7). 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iu, C. W. (2020). Rethinking music learning in the new normal. *General Music Today*, 34(1), 40-42.
- Mellizo, J. (2020). Music education, curriculum design, and assessment: Imagining a more equitable approach. *Music Educators Journal*, 106(4), 57-65.
- Min, K. H. (2020). Analyzing the problem of 2015 revision music curriculum based on competencies and discussing an improvement plan for the new music curriculum.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8(3), 143-161.
- Ministry of Education (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2]. Author.
- Min, Y. S., Jeong, Y. G., Lee, J. Y., Noh, Y. H., Shin, H. J., Yang, S. H., Yu, C. W., Lee, K. E., Kim, J. Y., Gwak, Y. S., Jeon, J. H., Lee, H. Y., & Park, J. M. (2018).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contents system*(CRC 2018-22). 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MoE. & KICE. (2021). *2020 Curriculum policy researcher(3rd) workshop: Interim report materials*(ORM 2021-18).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Nichols, B. E. (2020). Equity in music education: Access to learning during the pandemic and beyond. *Music Educators Journal*, 107(1), 68-70.
- OECD (2021).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Retrieved 16 January, 2021, from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 g/core-foundations>
- Park, J. H. (2019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encies presented in OECD education

- 2030 and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Focusing on the degree of reflection of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161-180.
- Park, J. H. (2019b).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meaning and elements of the competency in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6), 83-91.
- Park, J. H., & Yang, S. Y. (2018). The development of a textbook model for enhancing the music competency in the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1), 101-121.
- Song, J. H. (2015). A study on the music subject competency in the school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4), 117-146.
- Tobias, E. S., Campbell, M. R., & Greco, P. (2015). Bringing curriculum to life. *Music Educators Journal*, 102(2), 39-47.
- Varner, E. (2020). General music learning is also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General Music Today*, 33(2), 74-78.
- Walter, J. S. (2018). Global perspectives: Making the shift from multiculturalism to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General Music Today*, 31(2), 24-28.
- Yu, C. W., Park, J. J., Lee, G. I., Park, J. H., Kim, J. H., Kim, J. H., & Go, W. K. (2021).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future-oriented physical education and arts curriculum for the post-corona*(MoE-2020-10).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Zaffini, E. D. (2018). A deeper glimpse into the national core arts standards for general music. *General Music Today*, 31(3), 57-60.